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네번째 강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인문학 열풍은 한국이 선진국 경계에서 있다는 증거”

“스스로 기준 만들어 가치 생산하고 도전해야”

“한국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경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사회, 조직 미성숙한 단계인 후진국은 그 사회를 관리하는 힘이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오고, 중진국은 경제, 경영, 사회, 신문방송학 등 4가지 학문에서 나옵니다. 선진국은 이러한 학문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사회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민하는 인문학, 인류학, 고고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 분야 출신이 대거 사회 지도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에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왜 인문학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우리 사회의 인문학 열풍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중진국의 최상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강연은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여를 넘길 정도로 열광이 펼쳐졌

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고 스스로 질문한 뒤 "근대 역사를 보면 후·중진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사례는 없다. 반대로 선진국이 후·중진국으로 떨어진 사례도 없다"면서 "이는 곧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며 비판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현재 경제규모가 세계 60위권 에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면서 "30~40년 전만 해도 세계의 시선이 세계 10대 부국인 아르헨티나의 선진국 진입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회(국가) 전체가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시선을 갖춰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후진국의 시선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과 중·후진국의 차이에 대해 "선진국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결정하고, 후진국은 이 기준을 따른다. 선진국은 가치를 생산

하고, 후진국은 제품을 생산한다. 다시 말해 선진국은 지구촌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 선도하는 국가를 일컫는다"면서 "한 예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등 주요 물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개발)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중·후진국은 사회적 기준(법률, 제도 등)을 외부(선진국)에서 가져와 적용하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탓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하는 것은 자칫하면 일이 아닌 것으로 담연시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면서 "선진국이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모방하고 변형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창조적인 제품 개발 등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원인으로 인문학의 붕괴를 지목하며 "인문학의 기본은 독립인데, 이 독립은 결국 개인의 독립을 뜻하고, 이러한 독립성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선진국적 시선을 갖게 되는 밑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5층 연회장에서 지난 22일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왜 인문학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거름이 된다"면서 "인문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후진국에선 독립이 단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나(개인)보다는 우리(집단)의 이익을 강요하는 등 개인(독립)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후진국적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최 교수는 "후진국적 시선의 맹점은 선진국이 제시한 과거 질서를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미래가 아닌 과거에 함몰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후진국에선 (선진국이 이미 정해놓은) 대담한 잘하는 과

거 경험 인간은 똑똑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질문이 많은 미래형 인간은 불평 불만이 많은 인물로 내몰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며 질문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깝지만, 인문학에 그 길이 있다고 본다"면서 "인문학의 기본인 독립을 바탕으로, 국민 스스로 독립적 주체, 능동적 주체로 거듭날 때 선진국(민)으로 진입하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소소한 일상... 잔잔한 울림

임원식 아홉번째 시집 '등불 하나 켜고 싶다'

“시는 저의 인생이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시를 쓰다 보면 삶을 성찰하게 되고 진솔해져갑니다.”



자연은 노래합니다. 앞으로도 시와 삶이 함께 가는 그런 작품을 쓸 계획이죠.”

그에게 시는 가장 중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다. 매주 두 차례 '시의 산책로'라는 제목으로 시인협회 회원들에게 메일로 작품을 보낸다. 여기에는 시에 대한 해설, 관련 사진, 음악등도

우전 임원식(73) 시인이 아홉 번째 시집 '등불 하나 켜고 싶다'(시문학)를 펴냈다. 지난해 펴낸 '여덟 번째 시집 '사람에게 시를'(푸른길)에서 사랑을 주제로 노래했던 시인은 이번에는 소소한 일상을 소재로 감성적 언어를 선보였다.

'어머니의 산' '그리운 편지' '아브라함의 그림자' '아침 산책길' '서귀포 동백' 등 소재목이 말해듯 시인의 눈은 일상의 풍경과 사물에 닿아 있다. 생활과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은 평이하면서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시를 통해 내면을 다독이고

참부된다. 이번 시집 해설을 쓴 최동호 시인은 "그에게 시 쓰기는 자기반성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만들어 주는 기폭제"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시집 뒤편에는 시인의 자작시 '환속하는 봄비' '세월 갖는 여인'에 김진우 전 중앙대대학장이 곡을 붙인 악보가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천주교 광주대교구, 진도서 봉사활동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지난 19일부터 진도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는 23일부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밤 차 운영을 시작했으며, 상 장애지도사로 구성된 가톨릭 상장애봉사자회 회원들이 팽목항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부스에는 매일 교구 사제와 한국어 자수도자장상연합회 수도자, 본당 신

자와 가톨릭목포사회복지시설연합회 직원 등 봉사자들이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는 23일부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밤 차 운영을 시작했으며, 상 장애지도사로 구성된 가톨릭 상장애봉사자회 회원들이 팽목항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아픔' 함께 합니다

골퍼 최경주, 단원고에 1억 기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완도출신 최경주(44·SK텔레콤)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침몰함에 빠진 안산 단원고에 1억원을 기부한다.



최경주는 최경주재단을 통해 23일 "큰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지속적인 관심 속에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지속적 보살핌 기금'으로 1억원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최경주는 "후원하

함평 학다리중·고 교직원 단원고 학생 등에 성금

함평 학다리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세월호 사고로 실의에 빠진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함평 학다리중·고등학교는 양한모 이사장과 학생, 교직원 등 600여명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함평교육지원청을 통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전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갑수 학다리고 교장(사진)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학생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코치도 1억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감독과 코치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구조 활동을 돕고자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김용환 한화 이글스 감독이 동참했고, 지난주말 3전연이 열리는 동안 10개 구단 감독과 코치가 모두 흔쾌히 동의해 구단별 1천만원씩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사령탑 간사인 류종일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우리로 프로야구 종사자이기에 앞서 다들 부모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며 "실종자 가족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두 정성을 담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남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박노근씨 차남 경규군 백운(장흥법무사)씨 장녀 지선양=27일(일) 오후 2시 광주 라복 웨딩홀 3층 THE 하우스 홀.

▲이재문·윤숙씨 장남 성석(조선대 치과대학병원 수련의)군 정신영(E-클린치과 원장)·김정희씨 장녀 현주(E-클린치과 부원장)양=27일(일) 오후 1시 광주 S타워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김만석·김옥실씨 장남 동관(동양저축은행)군 박동호·김동례씨 장녀 지영(광주일보 광고마케팅팀)양=26일(토) 오후 1시 40분 광주 웨딩의 전당 금호3층 아도니스홀.

▲김종철·정숙씨 장남 홍길(화천기공)군 정재현(전 광주일보 논설실장)·임영숙씨 장녀 민영(광주은행)양=26일(토) 낮 12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그랜드볼룸홀.

▲이성식(F1주유소·고속에너지 대표)·이숙경(목포시보건소)씨 차남

우중(현대백화점 울산점)군 박정열·김도연씨 장녀 소진(현대중공업)양=5월10일(토) 오후 2시 울산MBC 컨벤션웨딩 1층 파에스타홀. 목포피로연 4월 25일(금) 오후 6시30분 상그리아비치호텔 8층 대연회장.

▲송재우·오정란씨 장남 승호군 안기석(광주시 체육U대회지원국장)·임순애씨 삼녀 수현양=27일(일) 오전 11시30분 대전 VIP웨딩홀 2층 디럭스홀.

▲서성명(LST 대표이사)·최길자씨 차남 정수군 강운용·공서운씨 막내딸 윤미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김상일(손불농협 상무)·윤형희씨 장남 호철(두산인프라코어 주임 연구원)군 김병학(조대여고 교사)·강성숙씨 장녀 민지(수원유문중학교 교사)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제일교회 예배당.

▲임근기(전남과학교육원 총무부장)·김영희씨 아들 민혁군 박래운·김영미씨 딸 헤미양=26일(토)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고장운(미림 엘라스틱 밴드)·최연애 씨 장남 성민(삼성 메디슨)군 김재담(일광기업 대표이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5 B1지구 직전 총재)·문금희 씨 장녀 시현(블루퍼스트)양=26일(토) 오후 1시30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나주 임씨 광주화수회 정기총회(회장 임종선)=2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상무 누리로 59 라복웨딩홀 지하 010-3620-6618.

▲수원 백씨 광주·전남중진회(회장 백형로) 정기총회=2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4층 010-3634-8728.

▲재광 보성 향우회 월례회(회장 채봉)=28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 서북구 유동 '페르마' 010-4609-2475.

광주시 북구 동림동 대성직업전문학교 5층 강당 010-6460-0804.

▲장흥 임씨 정기총회=26일(토) 오전 10시 30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정안사 010-8602-2958.

▲전주 이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동구본원 정기총회=25일(금)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17-601-2266.

▲나주 임씨 광주화수회 정기총회(회장 임종선)=2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상무 누리로 59 라복웨딩홀 지하 010-3620-6618.

▲수원 백씨 광주·전남중진회(회장 백형로) 정기총회=24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4층 010-3634-8728.

▲재광 보성 향우회 월례회(회장 채봉)=28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 서북구 유동 '페르마' 010-4609-2475.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임양 가정="임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임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권민권재단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동그리미 언어학습센터=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그룹치료 및 검사 평가 월~금(오전 9시~오후 7시), 토(오전 9시~오후 2시) 남구 대남대로 113(2층) 062-

433-5559.

부음

▲김광연씨 별세 박춘택·춘식·금복·금선씨 모친상=발인 24일(목)·금선씨 모친상=발인 24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손부원씨 별세 김용주·용진·대식·순복씨 모친상=발인 24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2호 故차영림 님 (남/75세) 子/子婦: 차중삼/이남성, 중기/김성민 女/婿: 차영림/김석민 호 실: 102호 발 인: 4월 26일 장 지: 화순 통복선영 연락처: 227-4386	402호 故한귀인 님(여/92세) 子/子婦: 유양순, 백종환/박경숙, 송남/신은주 女/婿: 백유남/송대이, 육순 호 실: 402호 발 인: 4월 25일 장 지: 영락중앙 연락처: 227-4314
201호 故김영례 님 (여/81세) 子/子婦: 민관기/오영순, 종순/배순옥, 완기/김진숙 女/婿: 민정덕/박우현, 정연/조석현 孫: 민승익, 승현, 경옥, 승호 호 실: 201호 발 인: 4월 24일 장 지: 영락중앙 연락처: 227-4381	401호 故박순임 님 (여/79세) 子/子婦: 구교성/사미나, 교철/이아미 女/婿: 구원희/한명희, 은영/최 은 夫君: 구한오 호 실: 401호 발 인: 4월 25일 장 지: 화순 양림동산 연락처: 227-4383
301호 故백소남 님(여/86세) 子/子婦: 김광주/심현순, 재순/이태경, 재용/백금희, 정석/문정희, 정진/김미경, 맹진 女/婿: 김기순/문조용, 육순/김원사, 순영/지광수, 성희/최일용 호 실: 301호 발 인: 4월 24일 장 지: 장흥유신선영 연락처: 227-4382	

孝 金 福 堂 祭 堂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